

누구를 위한 기념일인가?*

– 기념일에 관한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

손성우** · 태지호***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기념일과 소파등받이점, 주체와 타자의 동일시 그리고 호명과 환상
- III. 근대성의 지점과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 IV. 기념일에 대한 구체적 논쟁 및 소급지점
 1. 광복, 해방, 독립으로서 8.15
 2. 한국전쟁 : 6.25전쟁인가 한국전쟁인가
 3. 3.1절 기념 : 근대적 기념 투쟁의 시작
 4. 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의 기념 투쟁의 장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일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에 주목해 기념일에 관해 라캉과 알튀세르적 접근을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는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념 투쟁들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라캉과 알튀세르의 이론과 개념 등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기념투쟁이 19세기말 진행된 근대화 초입을 그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 외상과 균열을 냈으며, 이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입니다.

** 주저자, 부산대 영화연구소.

*** 교신저자, 안동대 사학과.

는 이데올로기 및 환상과 접합되어 사회적 갈등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기념일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분열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는, 균열을 메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열쇠어 : 기념일, 기념 투쟁, 근대화, 타자와 주체의 욕망, 라캉과 알튀세르, 기억

I. 들어가는 말

지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위도(緯度)의 0도 평행선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고정되었지만 경도(經度)의 0도 자오선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오락가락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4세기에 걸친 절망적인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었다. 영국의 시계공이자 휴대용 정밀 항해시계, 크로노미터(chronometer)의 선구자인 기술자 존 해리슨(John Harrison)은 자신이 만든 목재(木材) 시계를 통해 대담하게 경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별자리를 봄으로써 경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휴대용 시계를 통해 경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존 해리슨이 해결한 경도문제는 천체, 별의 위치 같은 근거 있는 준거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경도가 0인 지점에 해당하는 준거점은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고, 경도의 시작점은 임의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도가 0인 지점은 로마, 코펜하겐, 예루살렘, 피사, 파리 등등 다른 장소들이 될 수 있었다. 존 해리슨은 휴대용 해상시계를 통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준거점 또는 정박되는 지점은 반드시 구성되어야만 했다. 야니 스타브라카키스(Stavrakakis)에 의하면 그 준거지점 또는 정박점은 라캉(Lacan)의 소파 등받이점(point de caption)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미화의 미끄러짐을

1) Sobel, D., *LONGITUDE*, 1999, 김진준(역), 『경도이야기』, 웅진싱크빅, 2012, 19~26쪽.

멈추게 하는 기표’를 가리킨다. 소파등받이점은 의미를 고착화시키는 지점이지만 영구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의미의 고착만을 생산할 뿐이다. 존 해리슨이 찾아낸 경도 측정법은 준거점에 해당하는 소파등받이점을 임의로 찾아내야만 했다. 결국 경도는 1894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 경선(經線)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경선을 보편적인 준거지점으로 승인되었다. 그리니치는 모든 세계의 시간을 계산하는 경도 측정의 준거지점, 소파등받이점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경도 선정의 소파등받이점(그리니치 경선)이 어떤 필연성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요소, 헤게모니(hegemony)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니치라는 경도 측정의 준거지점은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그것은 영국에서 간행되고 그리니치 경선을 보편적 준거지점으로 활용했던 항해력(nautical almanac)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항해표 사용의 점증적인 헤게모니화의 결과였다.²⁾

이러한 고정점, 정박점이 되는 소파등받이점이 헤게모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역사 기념일의 자의성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기념(commemoration)은 ‘함께/같이 기억한다’는 것인데, 과연 기념일의 제정과 그 실천의 주체는 누구인가? 기념일이 국가의 정권을 획득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지정되고 그 입장에 따라 선정된다는 점에서 보다면, 이는 경선 준거 지점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적 결정과 흡사하지 않는가? 기념일의 근거를 따지는 사실판단을 넘어 그 근거를 틀 지우는 것은 무엇일까? 즉 근거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인정하고 투쟁하는 인정투쟁 행위를 넘어 ‘근거를 형성하는 틀’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이 기념일인가에 대한 정당성 여부나 기념투쟁의 의의를 넘어서 기념일을 구성하고 사회구성원 주체들을 호명하는 근본적 방식까지 기념투쟁의 뿌리를 거슬러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2) Stavrakakis, Y., *Lacan and the political*, 1999, 이병주(역), 『라캉과 정치』, 도서출판 은행나무, 2006, 154~159쪽.

제기하려고 한다. 뿌리 깊은 기념일은 어떤 면에서 뿌리가 없는 것인 동시에 뿌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의한 원인이자 결과인 일종의 소파등받이점에 비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기념일과 소파등받이점, 주체와 타자의 동일시 그리고 호명과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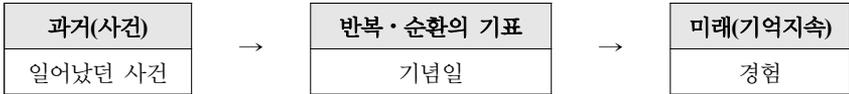
앞서 기념일이 일종의 소파등받이점이라고 의견을 전개했는데, 이런 소파등받이점의 사례로 스타브라카키스는 프로이트(Freud)의 <집단심리학>과 자아 분석(인용한 책에서는 <집단심리학>)에 나오는 ‘대중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를 들고 있다. 즉 대중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어 통일체를 창조하는 것이 소파등받이점이다. 이는 집합성을 구성하고 일체감을 창조하며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하고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집합체의 보편성의 체현으로 순수 존재의 대표물 혹은 체계의 체계성으로 가정될 때에만 참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³⁾ 라캉에 의하면 기표는 늘 여러 형태로 미끄러지며 기의는 자기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표는 한정된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의 선은 어디에선가 만나야만 한다. 기표와 기의의 끝없는 평행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소파등받이점이다. 소파등받이점은 누빔점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이 없으면 기표는 고정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집단을 통일체로 꿰고 참조점이 되는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하고 유지시켜주는 소파등받이점에서 기념일의 속성을 찾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 혹은 역사적 흐름이 직선적이라면 기념일은 그 흐름의 선

3) 같은 책, 196~201쪽.

4) Masaski, M., 『ラカン入門』 2016, 조현준(역), 『라캉 대 라캉 : 가장 명료하고 알기 쉬운 자크 라캉』, 새물결 출판사, 2017, 57~58쪽.

형성을 따르면서 기념일의 반복·순환하는 원환성(圓環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념일은 시간과 역사의 선형성이란 큰 흐름 안에서 반복·순환하는 원환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는 현재의 기념일을 통해 다시 재구성된다. 기념일은 발생했던 과거 사건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짜라는 기표 속에서 과거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과거를 되살리는 역사화 작업의 의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념일은 사회구성원들이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참여의 시간’이라는 의례화이며 역사를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자기인식을 겨냥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거-기념일-현재의 관계

위의 그림에서 ‘기념일’이라는 현재의 경험은 ‘대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와 통일체의 경험’ 즉 소파등반이점이며 동일성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성은 날짜의 같음이라는 시간의 동일성이자 그로부터 파생되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일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기념일은 사회구성원 주체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라캉의 거울단계와 주체 구성 등을 먼저 참조해야한다.

라캉의 주체는 ‘기표의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나’가 동일시할 수 있는 기표의 주체, 상징적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자아가 이미지와 연관된다(이는 상상적 주체가 된다)면 주체는 기표라는 상징계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아와 주체가 모두 나와 일치하지 않기에 이른바 소외(alienation)라는 것이 생겨난다. 당연히 나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나를 찾아나서는 모험을 하게 된다. 그 모험의 하나가 동일시(identification)이다. 그런데 자아와 주체는 근본적으로 앞서 인용

했듯이 타자를 참조하고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주체가 타자를 참조하고 상관하는 방식을 라캉은 거울단계(mirror stage)라고 명명하며 설명을 이끌어낸다.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미지를 보고 동일시할 때 생겨나는 구조를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거울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볼 때 그것은 자신인 동시에 자신이 아닌 일종의 소외를 경험케 한다. 이미지의 효과로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⁵⁾ 자아는 상상적 구성물로 주체 자신의 외부에 놓여있기에 주체의 상상적 동일성의 결과물이다. 이런 동일시는 정의상 소외적이며, 그로부터 탄생한 소외된 자아는 오인의 결과물이 된다. 자아는 타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거울 이미지는 주체에게 획득하기 어려운 이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이상적 자아라고 부른다. 주체는 자신의 이미지를 에로스(eros)화하는 한편 그 이미지와 경쟁한다. 이미지는 주체 자신이 결여한 이상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지를 에로스화하는 나르시시즘과 공격성은 동일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미지 안에서의 상상적 주체가 소외된다면 언어라는 타자 안에서도 주체는 소외된다.⁶⁾ 그리고 주체는 결여된 것을 메우기 위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의 욕망은 주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촉발시킨다. 타자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넘어 주체가 그것에 집착할 때 신경증이 생겨난다.⁷⁾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서 주체는 나서지만 오인을 하게 되고 이어 소외와 결여에 다시 빠져든다. 이런 주체와 타자 사이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 호명(interpellation)과 환상(fantasy)이 작용하는데 이는 라캉과 알튀세르(Althusser)의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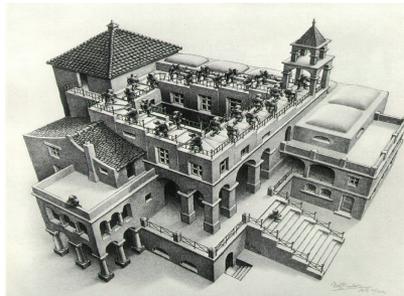
알튀세르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인생 전반에

5) Muller.J., *The Origins and Self-Serving Functions of the Ego*. In Karen Ror Malone & Stephen R. Friedlander (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p.43~50.

6) Chiesa, L., *Subjectivity and Otherness*, 2007, 이성민(역), 『주체성과 타자성』, 도서출판 난장, 2007, 39~85.

7) Fink, B., *The Lacanian Subject : Beanguage and Jouissance*, 1997,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 b, 1997, 100~104쪽.

걸쳐 나로서 주체로서 정체성, 생각, 행동의 근거지로서 나를 호명한다. 이데올로기는 일상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는 것처럼 나를 주체로 만든다. 즉 이데올로기는 내가 주체라고 믿도록 만든다(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대부분이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없게 한다.⁸⁾ 이러한 알튀세르의 주체는 라캉의 (즉 기표의 주체, 즉 상징적인) 주체 개념보다 상상적인 자아개념에 가까워보인다. 이는 주체의 상상적 객관화 또는 상징의 상상적 동일시 현상을 보여주는 라캉의 L도식의 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매개된 재현체, 문화적으로 구현된 현상이라 하더라도 거울 구조적 상상적 동일시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탄생은 최종적으로 상상질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⁹⁾ 한편 최원은 이데올로기의 호명과정을 세심하게 논증한다.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을 부를 때 그가 돌아서는 순간 행인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돌아서기 이전, 즉 호명이전에 놓여있는 어떤 요소가 그를 필연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가를 분석한다. 이데올로기는 에셔(Escher)의 작품 <올라가기와 내려오기(Ascending and Descending)>에 나오는 무한계단처럼 주체를 순환 속에 빠뜨린다.



[그림 2] 에셔의 <올라가기와 내려오기>

8) Ferretter, L., *Louis Althusser*, 2006, 심세광(역),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알피, 2006, 167~175쪽.

9)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198~199쪽.

이때 개인의 등 뒤에는 주체가 아니라 경찰,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있으며 이와 마주침을 통해서 개인은 주체로 구성된다. 즉 주체 이전의 주체는 마주침의 원인이 아니라 그 효과이다. 호명당하는 사람은 주체인 것을 아직 모르는 채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 안으로,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장치들 한복판으로 돌발한다. 이런 장치들의 작용을 의식하는 호명의 순간에 주체는 그 효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과거를 거꾸로 구성해냄으로써 마치 자신이 ‘항상 이미’ 지금과 같은 동일성을 갖고 살아온 주체인양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개인은 장치에 의해 자기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강제된 동일성을 자신의 원인으로 만드는 목적론적 전도를 통해 자신을 영원한 주체로 오인하게 된다.¹⁰⁾

이에 비해 슬로베니아 라캉주의자 지젝(Zizek)은 타자의 호명에 대한 주체의 반응 및 태도에 대해 라캉과 알튀세르의 차이를 구분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 장에서 내용들이 바뀌어도 그러한 장의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기표들을 누비는 소파등받이점이다. 이는 부유하는 요소들을 일련의 등가적 관계 속에 포함시키고 총체화시킨다. 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전체화하면서 장을 총체화시킨다. 하지만 상징적 동일시와 상상적 동일시의 순환 운동과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들의 누빔은 완벽하지 않게 된다. 즉 누빔점이 있어도 누빔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두 동일시 운동이 매우 지 못한 간극과 구멍을 남긴다. 이는 “너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 케 보이(Che Vuoi?), 즉 왜 나는 타자가 나라고 말하는 바가 되는 것일까? 라는 히스테리적 질문을 생성한다. 타자와 주체 사이의 간극과 구멍엔 케 보이(간단히 말해 “뭘 원해?”)가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주체의 환상(\$<a)이다. 즉 알튀세르식으로

10) 최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도서출판 난장, 2016, 228~244쪽.

타자는 주체를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호명하는 게 아니라 호명에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는 타자와 주체 사이의 간극 때문인데 이를 메우는 것은 주체의 환상인 것이다. 이런 환상은 타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줌으로써 주체의 막다른 골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타자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지만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실질적 호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위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종의 외통수 상황을 피하게 해준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알튀세르의 호명은 불완전하고 실패할 운명을 지니지만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간극에 있는 주체의 환상은 이를 메운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가 어떤 점에서 환상을 내포함으로써 주체들에게 충족감을 준다는 사실과 흡사한 게 아닐까? 기념일이 국민을 호명하는데 있어서 발견되는 역사적 문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한다.

Ⅲ. 근대성의 지점과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새해 첫날은 한해를 다시 시작하는 일종의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새해를 두 번 맞는다. 한번은 신정이라는 새해 첫날이며 다른 한번은 구정이라는 월력에 의한 전통적 새해 첫날이다. 이런 새해맞이에는 전통적인 설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함에 따라 생겨난 신정에는 근대화에 대한 갈등이 축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종의 새해 첫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수용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화 초입의 충격과 시대변동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환에 따르면 한국의 근대화 초입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개항 이후 외래 문물의 유입은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근대화의 양상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이념적·사상의 관념적 차

11) Zizek, S., *The Subline Object of Ideology*, 1989,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출판사, 2013, 149~191쪽.

원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끝내 외세의 손으로 지휘권을 넘기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¹²⁾

김덕영은 우선 한국의 근대화 이론을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 압축적 근대화론으로 나눈다.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 사회발전 과정을 내재적 힘과 요인에 의해 분석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는 일제 식민사학이 내세운 조선사회 정체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내재적 발전론은 조선 후기부터 자본주의 싹이 튼 맹아론(萌芽論)을 제시하며 일제 식민지배가 그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맹아론은 서구 중심적이며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또 이를 통해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 및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경제적 측면에만 관심을 모으는 한계를 보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발전된 이론이다. 즉 조선은 자력으로 자본주의를 창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일제의 착취가 개발과 성장을 통한 착취였고 식민지적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근대화를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요소 외에 다양한 힘과 요소에 의해 역사 발전이 이뤄진다는 점을 해당 이론은 간과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경제적 관점 외에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분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근대적 자아와 주체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해주지 못한다. 압축적 근대화론은 장정섭이 주장한 개념에 따른 이론인데, 이는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 과정의 두 축이 교차를 통해 압축근대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단축은 두 시점(시대)나 위치(지역)사이의 이동 또는 변화에 필요한 물리적 과정이 축약되는 현상이며, 압착은 서로 이질적 시대나 장소에 존재

12) 이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 지성사, 1999, 32~38쪽.

했던 복수 문명요소들이 일정 제한적 시공간에 공존해서 상호 압박 및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¹³⁾ 김덕영은 이 이론이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틀로 한국 근대화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장경섭이 채택한 분석적 귀납법의 연구전략과 구체적으로 수행한 한국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사이의 모순이 발견된다고 반론을 제시한다. 또 압축적 근대성은 시공간을 축으로 하는 추상적 분류학이 될 여지가 크다. 즉 한국 근대화의 출발시기를 적절히 말하기 어려움을 김덕영은 지적한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국가 주도 하에 본격적인 근대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두 개의 근대화 중 후자가 경제적 근대화만을 추구한 ‘환원적 근대화’라고 주장한다. 당시 국가지도자였던 박정희는 경제 외에 다른 부문의 근대화를 배제하고 이를 경제적 근대화로 환원시킨 것이다. 이는 이후 신군부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온 환원근대는 미완의 프로젝트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¹⁴⁾

이상을 통해 볼 때 19세기말 초기 근대화와 1960년대의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한국사회의 두 가지 근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근대화중 전자는 개항을 통한 외래문물의 유입과 일제의 통제와 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재적 발전에 의한 것임에도 둘의 초점은 경제에 집중된다. 후자의 근대화는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의 과정을 통해 과거 문물, 제도와 현대·탈현대적 문물·제도가 경쟁, 충돌, 접합, 화합 등의 현상으로 이뤄지거나 국가주도의 권력을 통해 환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념투쟁에 있어서 축이 되는 일제가 남긴 흔적, 잔재는 경제적 측면과 연관될 뿐 아니라 압축이라는 힘과 국가의 힘을 통해

13)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20쪽에서 재인용.

14) 김덕영,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4, 83~107쪽.

이뤄졌다고 축약된다. 다시 말해 경제와 힘(압축의 힘/권력)이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영향을 준 요인인 것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보면 근대화는 경제적 힘과 구조적 힘의 결과물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근대화가 일제에 의해 시행된 강압적 근대화였기에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근대화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한국은 8.15와 6.25를 맞게 된다. 미완의 근대화는 이후 1960년대부터 환원적 근대화 프로젝트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 다시 말해, 근대화의 시원적 문제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폭력에 의한 근대화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초기 근대화의 불완전한 문제에 근거를 두고 기념투쟁의 양상을 바라보려고 한다.¹⁵⁾ 그 힘이 상징적으로 각기 다르게 놓이는 지점이 기념일이라 한다면 기념투쟁은 단순한 기원의 문제이전에 힘과 알력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즉 기념투쟁은 근대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 간의 국가와 집단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념일은 타자의 호명과 연관해서 주체의 구성과 연관된다. 즉 기념일은 역사를 순환적 시간을 빌어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인식시키고 주체를 호명하고 그/그녀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념일 지정의 문제는 이른바 ‘기념투쟁’이라

15) 사실 역사, 민족, 기념(일)의 문제와 근대화 혹은 근대성과의 관계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억의 터’에 관한 주창자인 피에르 노라는 프랑스의 ‘역사’가 근대 민족 국가 혹은 민족사의 서사에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현재의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억들’이 ‘터’로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 근대의 문제는 중세 혹은 종교적 권위가 해체되고 나타나는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과 매우 밀접하다. 즉 국민 혹은 민족은 근대성에 의한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성과 근대 민족 국가(nation state)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고, 상보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는 근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공유하고 있는가와 연관된다. 노라가 제기한 근대 민족 국가 역사의 성찰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각각 ‘기억의 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Nora, P., *Les Lieux de mémoire*, 2005, 김인중 유희수 외(역), 『기억의 장소 ① 공화국』, (주)나남, 2010, 31-67쪽).

는 용어와도 연관된다. 이는 교과서의 기념일 지정과 서술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역사와 기억의 투쟁 방편이 된다.

IV. 기념일에 대한 구체적 논쟁 및 소급지침

대한민국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규정된 기념일은 2월 28일의 ‘2.28 민주운동 기념일’부터 12월 27일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국경일을 제외하고 48종의 법정기념일이 있다.¹⁶⁾ 그런데 기념일은 날짜를 정하는 것에 앞서서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위치지우는 행위가 선행한다. 즉 기념일¹⁷⁾은 오늘날 현재 역사를 다시 소급시켜서 ‘역사’ 속의 오늘이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가 하는 작업에 의해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의례의 표식 지점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기념일 논쟁은 기념일에 대한 엇갈리는 관점 및 사회적 인정문제라는 점에서 인정투쟁 형식을 갖는다. 호네트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법은

16) 시사전북. 2018.8.21. http://www.sisajb.com/default/editorial_index_view_page.php?part_idx=393&idx=37914

17) 기념일은 과거역사와 관련된 기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와의 연관성에 따라 존재 의미를 갖는다. 가령 권농일(勸農日)의 경우, 8.15 이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모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기념일이다. 권농일의 뿌리는 기록상으로 고려 성종 때(983년)부터 왕과 왕비가 몸소 농사일을 하는 행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손수 소에 맨 쟁기를 잡고 농사를 권장하고 사직단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8.15 이후 기념일로 자리 잡은 권농일은 1959년까지 6월 15일에 기념식을 가졌다. 이후 모내기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 6월 10일로 기념일이 변경되고, 1984년부터는 5월 넷째 주 화요일로 날짜를 앞당긴다(연합아카이브, <https://y-archive.com/%EA%B6%8C%EB%86%8D%EC%9D%BC/>). 권농일은 농본국가로서 전근대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념일이었기에 산업화가 촉진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의 맥락과 필요성에 의해서 기념일은 그 존재여부와 의미가 변동하는 것이다. 이는 기념일을 통해 집단의 기억에 소구할 이유가 없어진 사례이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압축적 근대화, 환원적 근대화를 통한 사회발전상을 추종함을 뜻한다. 그러한 사회발전상은 단지 지나간 과거에 집단의 기억과 관심을 환기한다는 의미를 추월해버린다.

인정관계의 확대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실현의 핵심인 자아형성과정이 타자의 인정과 밀접하며 이런 인정경험이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함에 따라 적극적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¹⁸⁾ 집단적 정체성의 형태 변화의 결과로 구성된 집단은 각기 자신들의 문화적으로 정의된 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이런 인정 요구 뒤에는 개인주의적 특성과 공동체적 혹은 집단적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진다. 인정은 우리 시대의 핵심어이며 상호주관성 측면에서 주체의 자율성 형성 조건인 인정범주는 수많은 갈등의 도덕적 핵심을 드러낸다.¹⁹⁾ 축약하자면, 호네프의 인정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체성 인정에 대한 요구에 기반 한다.

여기에 덧붙여, 인정투쟁은 무의식과 접촉된다고도 할 수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타자에게 무엇인지, 또 타자의 욕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르면 무의식은 타자의 담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증상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주체의 위치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담화에 위치한다. 이런 점에서 무의식은 더없이 정치적이며, 무의식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은 정치학과 수렴한다.²⁰⁾ 이렇게 볼 때 기념투쟁은 정치적 관계의 의식·무의식적 투쟁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억압을 전제하며, 이는 의식에 밀려 무의식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²¹⁾ 그렇다면 기념투쟁은 억압된 무의식이 발현하는 투쟁이며, 어떠한 억압에 대해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념일을 시간과 의례

18)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11~66쪽.

19) Honneth, A., Fraser, N., *Umverteilung 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2003, 김원식 문성훈(역),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 책, 2014, 251~253쪽.

20) 맹정현, 「한국판 특집-무의식의 정치학」, 『베스텐트』, 사월의 책, 2015, 185~186쪽.

21) Freud, S., *Die Verdrängung*, 1915, 윤희기(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4, 139~141쪽.

의 좌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좌표를 만드는 시간의 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진영에 따른 기념일의 차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기념해야 할 날에 대한 인정의 차이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시간의 변화는 시대라는 시간층위의 단절적 변화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림 3] 기념일에 대한 시차의 소급지점

그림에서와 같이, ‘역사’에 타자가 개입해 들어온 시대 및 사회변동의 균열지점이 기념투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근대라는 시간 개념이며,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근대는 무엇이며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낳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치적 무의식의 투쟁과 연관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인정투쟁의 갈래가 정치적으로 결을 다르게 하는 사례인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우리의 집단 정체성의 구성 혹은 재구성에 있어서 갈등과 경합의 상징적인 지점/순간들이기 때문이다.

1. 광복, 해방, 독립으로서 8.15

오늘날의 ‘개천절(10월3일)’은 한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한 ‘건국기원절(음력 10월3일)’을 기원으로 한다. 이후, ‘건국기원절’은 1949년에 정부가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개천절’로 이름을 바꾼다. 한국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과 독립선언일(3월1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을 한 것이다.²²⁾ 이런 이유 때문에 개천절이 원래 건국기원절이라는 사실은 망각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곧 ‘개천절’이며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10월3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8월15일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제정하고 기념하려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 된다.²³⁾

구 한나라당의 김용학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1949년 10월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5일이 광복절로 국경일이 된 후 이는 국민들 인식에 각인이 되어왔음을 그는 지적한다. 또 건국일은 광복을 포함한 역사과정을 포용하지만 광복은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기에 8월15일은 과거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날이 된다고 언급한다. 광복절이 가져온 것은 이데올로기적 아노미상태와 친미중속의 사회가치문화, 반일감정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건국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⁴⁾

한편, 양동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해방’은 ‘민족해방’이란 용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용어이며, 1945년 8월15일 이전에는 항

22) 참고로, 기념투쟁은 갈등 이전에 기념일을 인식하는 관점으로도 소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8월 15일이 광복, 해방, 독립 그리고 종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 15일을 종전이라 명명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북한(해방기념일) 그리고 일본 뿐이다. 러시아, 중국, 몽골은 9월 3일을 항전승리기념일로 기념한다. 또 타이완은 10월 25일을, 필리핀은 9월 3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9월 12일, 타이와 버마는 9월 13일을 종전으로 기념한다. 8월 15일에 종전이 되었다는 인식은 도쿄중심, 즉 황궁 주변의 역사관에 의한 것이다(SATO Takumi., *HACHI GATSU JUGO NICHU NO SHINWA*, 2005, 원용진·오카모토 마사미(역), 『8월15일의 신화: 일본역사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궁리출판, 2007, 12쪽). 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근거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정치적 갈등 및 문제와 연관될 경우 기념투쟁의 양상을 띠다고 볼 수 있다.

23) 조덕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2집, 2017, 184~219쪽.

24) 김용학, 「대한민국, 건국절이 필요하다」, 『국회보』, 통권442호, 2003, 39~40쪽.

일독립운동세력중 좌익들이 주로 선호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익은 ‘독립’과 ‘광복’을 선호했다. 이런 반공의식으로 인해 ‘광복’이 ‘해방’과 같은 의미로 왜곡된 후 반공의식이 강한 이들은 1945년 8월15일을 ‘광복’이라 일컫기를 선호했고, 좌익성향의 사람들은 ‘해방’이라 말하기를 즐겼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학술적 논저나 교과서 등에서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려 1945년 8.15를 해방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후 5공 정권이 1982년 교과서에서 1945년 8.15를 기술할 때 광복으로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1945년 8.15 해방이 광복절로 둔갑하자 원래 광복절로 제정됐던 1948년 8.15는 정부수립기념일로 격하되었다.²⁵⁾

그리고 윤선자는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를 다루는 논문에서 ‘광복’인가 ‘해방’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했으며 ‘독립운동’인가 ‘민족해방운동’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광복60주년은 독립운동사와 관련해 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학계에서 독립운동사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성과는 1980년대 후반에 나왔음을 주장한다. 그녀는 광복60주년을 맞아 2005년 학술회의 가운데 4월 29-30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개최한 “2005년도 독립운동사 연구자 대회”의 주제가 ‘독립운동사 용어, 무엇이 문제인가’였음을 거론한다.²⁶⁾

지금까지 인용한 바에 있어 공통되는 점은 바로 8.15를 지시하는 ‘용어’의 문제이다. ‘광복’, ‘해방’, ‘독립’등에 대한 용어는 8.15에 일어난 사건을 지시하는 각기 다른 기표이다. 그 기표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사건에 대한 명명과 시간추이 및 처한 환경상황 등을 거쳐 변화된다. 국제사회의 열강과 국내 통치자와 국회, 언론, 사회적 언어사

25) 양동안, 「1948년 독립·건국... ‘광복’, 1945년은 ‘해방」, 『자유마당』 Vol.78, 2016, 77~83쪽.

26) 윤선자,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191집, 2006, 169~198쪽.

용 태도와 습성 등은 용어의 뜻을 고착화시키거나 변화를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자의 영향력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기념일에 대한 명명과 의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앞서 인용했듯이 동일시는 이미지와의 상상적 동일시이거나 기표와의 상징적 동일시이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 진영 간의 기념일 논쟁과 투쟁은 이런 동일시의 결과물들이다. 언어라는 타자 안에서 주체는 소외되며 결여를 느낀다고 논의한 바 있는데, 기념투쟁은 한편으로 이런 소외와 결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결여를 메우기 위해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는 용어의 근거를 타자의 발화의도에서 찾거나 시간상의 의미변화와 분기지점으로 소급해 들어가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일제의 침입과 강점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어진 신탁 통치와 한국전쟁은 근대화에 대한 새로운 단절점이 된다. 즉 일제의 그림자와 서구 열강들의 외력은 아직까지도 기념일이라는 기표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있다. 결국 기념투쟁은 우리 역사에 흔적을 남긴 우리 속의 타자들과 싸우는 투쟁이기도 한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 8.15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연설과 2008년 8.15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연설은 온도차를 보인다. 노무현은 8.15를 제국주의 신민통치로부터 해방으로 의미화하고 해방 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근대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비극과 고통으로 본다. 때문에 통일은 지상과제로 의미화된다. 반면 이명박은 2008년 8.15에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경축사를 낭독했다. 그는 8.15를 일제로부터의 벗어남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로 접근했다. 이명박이 얘기하는 8.15는 1945년의 8.15가 아니라 1948년 8.15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8.15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노무현과 달리, 남북한 국가체제의 분리와 민족적 슬픔을 강조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수립을 성공, 발전, 기적, 자유의 수호라는 가치로 의미화 한다. 그리고 건국절 제정운동

의 추진력은 2008년 당시 정부로부터 만들어졌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안)’은 60주년을 기념할 상징성 있는 주제를 선정, 기념행사, 학술문화연구, 국민 참여 축제 등을 기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건국절의 인식론적 토대를 공식화했다(하상복, 2012, 110, 111, 117, 124쪽).²⁷⁾ 이 경우 8.15 기념의 의례와 그 방식은 물론, 8.15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연설과 유관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념의례의 상징성은 기념일의 의미와 뿌리를 정박시키는 국가지도자의 언술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념일의 명명과 의의를 8.15라는 추상적 기표를 넘어, 그 근원과 뿌리를 1945년이 아닌 1948년에 정착시킴으로써, 민족과 영토, 국가의 분열이라는 역사를 은폐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2. 한국전쟁 : 6.25전쟁인가 한국전쟁인가

정용욱은 한국전쟁을 이념적 성격이 강조된 심리전장과 이미지 싸움, 선전 전쟁이란 시각에서 바라본다. 먼저 미국의 공군대학 인력연구소(HRRI)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회과학계의 한국전쟁 및 남북 사회에 대한 이해방식을 읽어낸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디든지 존재 가능한 개인들간의 갈등의 한 형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공산주의의 강요로 촉발된 꼭두각시들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황, 승패보다 이념적 덧칠이 교전 당사자들에게 중요해진 점이 있다. 이런 시각은 선전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냉전시대의 심리전장이자 국제전이었으며 이런 심리전은 한국사회에 반공주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를 고정시킬 뿐 아니라 내용에 덧칠을 가했다.²⁸⁾

27)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기념일의 해석 :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110~124쪽.

이런 심리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정신분석학적으로 환상전쟁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 환상은 주체의 것(네가 무엇을 원하는가?)이 아닌 타자의 욕망, 즉 ‘타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내게 무엇을 보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린아이의 경우를 보면 그는 복잡한 관계망에 끼워 넣어져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욕망이 일종의 촉매제이자 전장으로 이용된다.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환상은 내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말해주는 상호주관적 성격을 갖는다.²⁹⁾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외력이 강하게 작용한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의 영향에 이은 공백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까? 한국을 둘러싼 타자, 서구 열강의 짜놓은 냉전체제라는 큰 무대 안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타자들의 주체로서 한반도는 두 조각이 난 것이며, 이는 전통 지배사회의 개인들 간 갈등의 형태이자 공산주의의 강요라는 타자의 욕망에 의한 전쟁이라 볼 수도 있다. 결국 복잡한 관계망이 끼워져 있는 아이를 둘러싼 주변 타자들의 욕망이 촉매제이자 전장으로 이용된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아이는 타자들이 벌이고 있는 게임(전쟁)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는 것도 한국전쟁의 성격과도 상응하는 면이다. 정용욱이 언급한 심리전은 이런 환상의 성격에 부합한다. 지젝이 논의하듯, 욕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이다. 환상을 통해 인간은 욕망하는 법을 배운다.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도록 틀을 짜주는 것이 환상이다.³⁰⁾ 즉 북반구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전근대적 계급사회를 전복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이룬다는 환상을 통해 욕망의 틀을 짰다면, 남반구는 서구 문물과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수입해서 이를 수 있으리라는 근대사회에 대한

28) 정용욱, 「미군 의 뼈라 심리전 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294~296쪽.

29) Zizek, S., *Less Than Nothing : Here! and the Shadow of Dialectical Materialism*, 2012, 조형준(역), 『라캉 카페: 헤겔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그늘』, 새물결 출판사, 2013, 1213~1214쪽.

30) Zizek, S., 1989/2013, *op. cit.*, p.206.

환상을 통해 욕망을 가졌다. 이는 국제적인 냉전무대의 주축인 미국과 소련이라는 타자의 욕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뿌리가 뽑힌 일본에 종속된 상태에서 찾아온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는 공백상태는 다시 서구 열강, 타자들의 욕망이 한반도를 둘러싸게 만든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한국전쟁에 관한 논쟁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0년 6.25, 40주년의 학술적 연구들은 보수와 진보의 시각적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적 시각의 연구들은 북침설, 북침유인설, 대리전쟁설 등의 전쟁기원에 대한 수정주의적 논의를 반격했고 일부는 당시 소련 측 전쟁 관련자들이 북의 기습남침을 확인해준 사실을 확인, 남침설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입장은 기존의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의 논의 중요성을 저평가했으며 전쟁전후 상황과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³¹⁾ 이는 보수와 진보의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의 기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2014년에 이재봉은 한반도 분단을 세 유형으로 바라본다. 첫째는 1945년 8.15와 동시에 국토가 남북으로 잘렸으며(국토 분단 또는 지리적 분단) 둘째는 1948년 8월 남쪽에는 자본주의 지향의 대한민국이 9월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체제가 둘로 나뉘어졌다(체제분단, 정치적 분단). 셋째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으로 같은 민족이 두 진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민족 분단). 즉, 국토분단에 이은 체제 분단이 민족분단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봉은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분단에 의한 투쟁 등에 의해 10만 명이나 사망하였는데, 6.25가 그날에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6.25전쟁이라 칭하기도 어색하다고 주장한다. 즉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그 배경과 이유보다 날짜와 어떤 주체가 시작했는지에만 초점을 둔 강요당한 역사인식이라 그는 비판한다. 또 전쟁을 누가 왜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해 상대에 대한 적대를 키우는 것보다 당시까지

31) 중앙일보, 1990. 6.7. <https://news.joins.com/article/2468673>

휴전 혹은 정전협정을 종전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³²⁾ 이는 ‘하루’로 지정된 6.25 기념일보다 더 큰 시야의 확장을 통해 거시적으로 6.25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남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는 시각이다.

그리고 위에서 정영욱이 지적한 한국전쟁의 심리전이 반공의식을 환기시키고 고정된 이미지와 관념을 생산해왔다는 점은 아직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실 한국전쟁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 대한 각성일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은 휴전과 올해 가을 종전선언³³⁾을 앞두고 있음에도 진영 간의 적대와 환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적에 의하면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의 목적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상은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균열을 미리 고려해놓는 방식으로 사회적 상징적 동일성을 부과하는 모든 동일시 작업의 실패를 보상해준다. 이를테면, 유태인은 사회가 하나의 완결되고 동질적 전체로 자신의 동일성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다. 이에 따라, 부정성(유태인은 질병을 옮기고 그들의 자본이 경제 및 사회를 뒤흔들어놓고 일자리를 뺏어간다 등을)을 유태인 형상 속에 집중시킨다.³⁴⁾ 공산당을 완전히 없애면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을 열망하는 반공투쟁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환상이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일제에 의해 구멍 뚫린 근대화에서 다시 상흔을 남김으로써 지워지기 힘든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6.25 50주년의 기념행사는 그 상징성이 매우 컸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해당 기념일을 국제적 행사를 통해 부각시켰다. 국내외 참전 전사자 명비 봉헌과 명각을 기념관 회랑에 각인하고 참전 21개국 참여로 6.25전쟁을 재조명했다. 그리고 국립

32) 프레시안. 2014. 9.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66&ref=kko#09T0>

33) BBC. 2018. 4.27. <https://www.bbc.com/korean/news-43921390>

34) Zizek, S., 1989/2013, *op. cit.*, pp.209~210.

묘지 참배와 전쟁희생자 추모를 비롯 참전용사 오찬, 위로연, 참전국 대표전적비 참배, 관광견학을 추진했다. 또 열린 음악회와 6.25전쟁 50주년기념 온 겨레 평화대행진 특별기획전 등을 열었다.³⁵⁾ 이런 의례방식은 6.25라는 날짜를 중심으로 참전국 용사들의 공간을 초점화 시킴으로써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간과 국제적 공간을 환기시켰다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자 ‘6.25전쟁’이라는 의미를 하나로 수렴시키는 기념행사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열강들의 전쟁이자 한국 내부에서의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성을 일깨우고 조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념 행위의 방향성에 덧붙여, 2010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에, 카톨릭 뉴스기사³⁶⁾는 전쟁에서 기념되는 것이 대부분 군인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충성심, 영웅화가 중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쟁기념 속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성찰과 평화에 대한 고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념일이 기념해야할 대상이 은연중에 은폐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념은 그 안에 부분적 망각을 또 기념일이 지시하는 대상은 기념 이면의 가려진 측면이나 소외를 낳기 때문이다.

3. 3.1절 기념 : 근대적 기념 투쟁의 시작

1946년의 3.1절은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으로 우익은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좌익은 민족대표들은 리더십이 부재했기에 실패로 끝났으며 노동자, 농민이 진정한 민족대표라고 주장했다.³⁷⁾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일을 주축하

35)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2008, 25쪽.

36)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0.6.21..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1>

37) 박명수, 「1946년 3.1절 :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 『한국정치 외교사 논총』제38집, 2016, 85~118쪽.

는 진영의 입장에 따라 해당사건에 대한 인식의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즉 기념일이라는 날짜의 기원 문제뿐 아니라 함축된 의미의 기원까지도 기념투쟁의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사건	기념일 날짜 기표	기념일에 대한 명명 기표	외연적·내포적 기의
실재	상징적	상징적	상상적

[그림 4] 기념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속성

먼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사람들은 날짜가 언제인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정한다.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던 상징화되기 이전의 실재³⁸⁾에 해당한다면 기념일 날짜 기표와 그에 대한 명명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기념일에 대한 기의는 상상적이다. 설령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념일 날짜 기표를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념일에 서로 다른 명명을 할 수 있는 것(8.15)이다. 혹은 기념일에 대한 날짜 기표와 명명을 각각 상이하게 할 수 있다(건국절, 광복절). 그리고 기념일 날짜기표와 명명이 같더라도 외연적·내포적 기의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1946년 3.1절 기념투쟁을 했던 기념행사의 양측의 투쟁입장이 그렇다. 위의 표에서 보듯 기념투쟁은 사건에 대한 명명과 기

38) 1940년대와 1950년대 라캉은 상징계와 상상계의 대립으로 정신의 지형을 파악했다. 즉 이때 상상계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것이었고 상징계는 치료와 연관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오게 되면 라캉은 그 지형에 실재를 추가한다. 실재는 이전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상상계의 개념과 비슷한 면을 가진다. 즉 트라우마적 속성을 갖게 되고 상징화할 수 없는 것이 된다(Bracher, M., *How Analysis Cures According to Lacan*. In Kareen Ror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pp.190-192). 이 세계는 재현의 상징계와 재현불가의 실재 그 사이의 상상적인 상상계라 말할 수 있다. 즉 ‘말해지는 대상’이 실재이며 ‘언어’는 상징계, ‘의미’는 상상계에 해당한다. 단 의미는 열려져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정적 속성도 내포한다(홍준기, <라캉, 클라임, 자아심리학 : 정신분석 역사 속에서 <에크리>와 <세미나>바로 읽기 1>, 새물결출판사, 2017, 184~186쪽).

념일 지정, 이와 연관된 기의간의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다. 역사적 실재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 체험과 기억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념투쟁이 단지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체험과 기억을 기록을 통해 역사화하며 나아가 기념일을 통해 후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다시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부여 및 지속적인 의미누적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기념일은 역사의 상징적 수렴점이다. 그리고 기념투쟁은 이런 수렴점을 기표와 기의 측면에서 다른 근거와 입장에 따라 싸우는 것이다.

태지호에 따르면, 역사는 인간의 과거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사례를 통해 수집 및 정리를 거친 뒤 역사가의 특별한 인식과 방법을 통해 역사학으로서 현재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³⁹⁾ 그런데 이런 선택의 과정, 수집 및 정리의 과정, 인식과 방법 경유의 과정, 현재화의 과정 등의 역사 서술에는 작업의 연속성 뿐 아니라 간극이 자리한다. 그 간극에는 당연히 다른 가능성들이 개입하고 역사 서술을 단일하게 구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담론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역사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시각으로서, 역사의 구성은 내러티브를 방법적으로 활용한다.⁴⁰⁾ 여기서, 역사가 내러티브로 구성된다는 입장은 기념투쟁에 있어서 더 많은 쟁점과 함의를 낳게 할 것이다. 역사의 내러티브 구성에는 선택과 배제의 작업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로 역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재현이 곧 이데올로기를 배태함을 뜻한다. 볼로쉬노프(Volosinov)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재현의 영역에 존재하며 여분의 주관적 의미이자 관찰자에 의해 물질 세계에 더해지는 것이다. 기호들의 영역이 곧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된다.⁴¹⁾ 임종명은 3.1절 국정

39)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viii쪽.

40) 같은 책, x ~ x v 쪽.

41) Hawkes, D., *Ideology*, 1996, 고길환(역), 『이데올로기』, 동문선, 2003, 162~163쪽.

화가 정치적 의제에 의한 과거에 대한 선택적 기억 및 배제의 이중적 과정을 거친 작업이었음을 밝힌다. 초기의 대한민국은 3.1절을 국가기념일화하고 관련행사를 국가축제화함에 따라 3.1절을 지방화·전국화는 물론 가정화와 개인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제 3.1’을 통해 남한사람들은 자기희생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의 생산동원이 이뤄졌음을 알게 한다. 또 이런 국가기념일로서의 3.1절은 역설적으로 3.1이라는 과거를 역사에서 배제하고 망각시킨다. 1946년의 3.1 기념행사에서 볼 수 있듯 투쟁하는 기억과 담론은 공식적 국가 기념일이 됨에 따라 억압되고 남한사회의 집단기억과 역사책에서 소거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 기억의 선택과 배제는 배제될 과거의 대안적 함의 또한 소거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⁴²⁾ 이런 점을 참작할 때 기념일의 구성은 역으로 역사의 다기한 갈등과 쟁점들을 억압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기념일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다. 공식적 기념일은 기념일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가진 정치적 상대진영 뿐 아니라 역사적 실재가 가진 다양한 맥락과 역동적 의미들을 억누른다. 앞서 인용했듯 프로이트에 의하면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기념투쟁은 어쩌면 이런 기념일 지정의 억압이 다른 기억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2006년에 있었던 서울시에서 열린 3.1절 60주년 기념행사는 그런 억압을 다시 재현을 통해 의미를 되새겼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는 과거 역사의 행적에 오늘날의 행사를 포개어 놓는 일종의 오버랩(Overlap)과 같은 방식을 취했다. 우선 3.1절 정오에 보신각에서 기념타종행사를 개최했는데 약8분간에 걸쳐 총33번의 종을 치는 사람으로는 직접 독립운동을 했던 12명의 인사를 초청했다. 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 거리축제를 통해 당시 민족대표33인을 재현하고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기미년 당시

42)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생산」, 『역사학 연구』제38집, 2010, 377~381쪽.

복장을 하고 보신각까지 태극기 물결행진을 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도 ‘1919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강북구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준비한 우이동 천도교 봉황각에서 3.1운동 독립만세 운동 재현퍼포먼스를 개최했다.⁴³⁾ 이런 기념행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퍼포먼스를 통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쓰는 응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에 있을 3.1절 100주년 축제⁴⁴⁾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남북한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지금 3.1절 100주년은 근대화에 따른 우리 역사의 균열점과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제시해줄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다.

4. 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의 기념 투쟁의 장

3.1독립선언 이후 한반도 및 그 주변에는 8개의 임시정부가 생겼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교통, 통신의 불편 및 일제 강점상황 때문에 상호연락과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8개중 5개는 실체가 지속되지 않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의회’(3.17수립),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4.13), 서울의 ‘한성정부’(4.23), 이 3개의 임시정부가 실체유지를 하다가 1919년 9월11일 헌법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통합독립항쟁기구였고 임시정부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약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독립투쟁이 임시정부 때문에 독보적으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서 그 가치를 폄하했다. 즉 구성자체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결체라 대표성이 없고, 내부 분쟁에 열을 올렸다 비판, 독립투쟁의 역할을 부인했으며, 외국의 지원금을 횡령하는

43) 서울특별시, 2006,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30058_8736.html

44) 폴리뉴스.2018.10.5.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8936#08mq>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⁴⁵⁾ 이런 임시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임시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태도와 공교롭게도 겹쳐진다. 보수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윤대원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남북한 역사인식에 단절의 골이 깊은 이유는 3.1운동에 대한 성격규정문제가 남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적 정당성과 깊이 관련되어왔기 때문이다. 외부의 타자 일제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입장 차이는 결국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고 서로를 타자화시켜 왔다. 또 공교롭게도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있어서 보수가 임시정부의 가치를 부인했다면 북한도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한반도 내부의 남북한 대립과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이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인식을 흐트러 놓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위치는 일제에 의해 부인되고 척결되어야하는 대상이었듯 현재 정치적 위치와 쟁점관계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 된다.

박혁은 임시정부의 위상재정립의 필요성을 해방 이후 정치 이념적 필요에 의해 부정 무시해 온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인식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본다. 1987년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명시되었음에도 여전히 건국절 논란을 통해서 그것은 부인된다. 그는 임시정부에 대한 일방적 폄하나 특정 인물 중심의 배타적 정통론 논쟁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확립은 곧 정체성 확립으로 국민을 통합하게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근거는 상징성을 가지며 국민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임시정부는 소파등 받이점이 된다. 즉 대중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며 통일체를 창조한

45) 윤유, 「‘광복’의 역사, 새롭게 인식해야 - ‘건국60주년’은 부적절하다」, 『삼균주의 연구논문집』 제30집, 2009, 135~136쪽.

46) 박혁,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민주연구원, 2018, 10~11쪽.

다. 이는 집합성과 일체감을 만들며 이데올로기 장의 동일성을 창조·유지시켜준다. 이런 유대감과 집합성, 일체감을 수렴하고 있는 소파등받이 점이 남과 북,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인정투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4월13일에 열린 임시정부 수립 87주년 기념식 메시지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작성했고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했다. 그 내용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을 지켜냈으며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토대를 놓았으며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것을 설득하고 있다.⁴⁷⁾ 국가지도자의 메시지는 국가공동체를 묶는 힘과 역할을 갖는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내력을 얘기하는 것은 현국가의 근원을 명시하는 역사적 토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2007년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이 되는 기념식 기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의 전환점이었으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자주독립 의지를 널리 알린 항일투쟁의 구심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임시정부는 청사를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도 법통을 굳건히 지켰는데 중경(中京/重慶)이라는 장소는 1940년부터 광복을 맞기까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곳이자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음을 강조한다.⁴⁸⁾ 즉 중경은 임시정부 유적이 물적 자료로 남아있는 국외의 장소지만 항일투쟁이 이뤄졌었던 곳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의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물적 증거를 거론하는 기념사는 당시 나라 잃은 상태에서 임시정부의 실재성과 역사적 근거를 명시한다.

47) 청와대, 2006. 4.13.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a5787148aa9e9ba32c164949

48) 국무총리실, 2007. 4.13. http://www.allim.go.kr/jsp/dataroom/dataroom_speech_view.jsp?id=91012395

V. 나가며

이상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를 둘러싼 기념투쟁의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런 투쟁의 근거를 외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화 초입이라는 문제적 지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불완전한 근대화는 우리 민족과 역사에 외상의 흔적을 남겼고 그것은 기념일을 둘러싼 기념투쟁으로 다시 반복·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했듯 알튀세르적 관점에서 주체는 기념일의 호명하는 순간에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거꾸로 구성해내어 항상 이미 현재와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살아온 듯 착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점에서 기념투쟁은 기념일 너머 근대의 균열점으로 주체를 불러들인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기념투쟁은 그 주체들에게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 즉 주체는 기념일의 호명 장치들 한복판으로 돌발해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 지젝이 해석하는 라캉적 관점에서 주체는 환상을 통해서 호명의 실패를 완성시킨다. 기념일의 호명은 주체의 환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기념투쟁은 주체들에게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타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념일은 다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념일과 기념투쟁은 우리가 누구인지 집단 정체성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처럼, 기념투쟁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보면 근대화라는 역사적 균열점과 트라우마에 이른다. 본 논문의 ‘들어가는 말’에서 기념일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인정하고, 투쟁하는 인정투쟁 행위를 넘어 ‘근거를 형성하는 틀’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기념일의 근거를 형성하는 틀은 8.15, 한국전쟁, 3.1절, 임시정부 사례분석에서 보듯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혹은 분열된 근대로의 열망에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기념일을 둘러싼 논쟁은 근대화 과정의 균열지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동시에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호명의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2008.
- 김덕영, 『환원근대 :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4.
- 김용학, 「대한민국, 건국절이 필요하다」, 『국회보』, 통권442호, 2003.
- 맹정현, 「한국관 특집-무의식의 정치학」, 『베스텐트』, 사월의 책, 2015.
-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 박명수, 「1946년 3.1절 : 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 『한국정치 외교사 논총』제38집, 2016.
- 박찬부, 『라캉 :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 박 혁,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민중연구원, 2018.
- 양동안, 「1948년 독립·건국... ‘광복’, 1945년은 ‘해방」, 『자유마당』 Vol. 78, 2016.
- 윤선자, 「광복60주년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역사학보』 191집, 2006.
- 윤 우, 「‘광복’의 역사, 새롭게 인식해야 ‘건국60주년’은 부적절하다」, 『삼균주의 연구논문집』 제30집, 2009.
- 이 환,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 지성사, 1999.
- 임종명,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생산」, 『역사학 연구』제38집, 2010.
-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정용욱, 「미군 의 뼈라 심리전 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 조덕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82집, 2017.
- 최 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도서출판 난장, 2016.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기념일의 해석 :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 홍준기, <라캉, 클라인, 자아심리학 : 정신분석 역사 속에서 <에크리>와 <세미나> 바로 읽기 1>, 새물결출판사, 2017.
- Bracher, M., *How Analysis Cures According to Lacan*. In Kareen Ror

-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Chiesa, L., *Subjectivity and Otherness*, 2007, 이성민(역), 『주체성과 타자성』, 도서출판 난장, 2007.
- Ferretter, L., *Louis Althusser*, 2006, 심세광(역),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앨피, 2006.
- Fink,B., *The Lacanian Subject :Beanguage and Jouissance*, 1997,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 b, 1997.
- Freud, S., *Die Verdrängung*, 1915, 윤희기(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4.
- Hawkes, D., *Ideology*, 1996, 고길환(역), 『이데올로기』, 동문선, 2003.
- Honneth, A., Fraser N., *Umverteilung 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2003, 김원식 문성훈(역),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 책, 2014.
- Masaski, M., *ラカン入門*, 2016, 조현준(역), 『라캉 대 라캉 : 가장 명료하고 알기 쉬운 자크 라캉』, 새물결 출판사, 2017.
- Muller. J., *The Origins and Self-Serving Funcnions of the Ego*.In Kareen Ror Malone&Stephen R.Friedlander(Ed.). *The Subject of Lacan : A Lacanian Reader for Psychologist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 Nora, P., *Les Lieux de mémoire*, 2005, 김인중 유희수 외(역), 『기억의 장소 ① 공화국』, ㈜나남, 2010.
- SATO Takumi., *HACHI GATSU JUGO NICHI NO SHINWA*, 2005, 원용진·오카모토 마사미(역), 『8월15일의 신화 : 일본역사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궁리출판, 2007.
- Sobel, D., *LONGITUDE*, 1999, 김진준(역), 『경도이야기』, 웅진싱크빅, 2012.
- Stavrakakis, Y., *Lacan and the political*, 1999, 이병주(역), 『라캉과 정치』, 도서출판 은행나무, 2006.
- Zizek, S., *The Subline Object of Ideology*, 1989,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숨고한 대상』, 새물결 출판사, 2013.
- Zizek, S., *Less Than Nothing : Herel and the Shadow of Dialectical Materialism*, 2012, 조형준(역), 『라캉 카페:헤겔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그늘』, 새물결 출판사, 2013.
- 국무총리실, 2007. 4.13. http://www.allim.go.kr/jsp/dataroom/dataroom_speech_view.jsp?id=91012395

노컷뉴스, 2018.5.15. <http://www.nocutnews.co.kr/news/4969729>
대자보, 2005. 4.8. <http://www.jabo.co.kr/10170>
서울특별시, 2006,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30058_8736.html
시사전북, 2018.8.21. http://www.sisajb.com/default/editorial_index_view_page.php?part_idx=393&idx=37914
연합아카이브, <https://y-archive.com/%EA%B6%8C%EB%86%8D%EC%9D%BC/>
중앙일보, 1990. 6.7. <https://news.joins.com/article/2468673>
청와대, 2006. 4.13.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a5787148aa9e9ba32c164949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0.6.21.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1>
폴리뉴스, 2018.10.5.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8936#08mq>
프레스리안, 2014.9.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966&ref=kko#09T0>
BBC, 2018. 4.27. <https://www.bbc.com/korean/news-43921390>

Anniversary for whom?:

Approach of Lacan and Althusser about Anniversary

Son, Seong Woo · Tae, Ji Ho

This study, approaching through view of Lacan and Althusser, is focused on conflicts and struggles concerning anniversaries in our society. August 15, Korean War, March 1 and Provisional Government a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examining aspects of commemorative Struggle and changing process to those subjects. Means of the study are used through theories of Lacan and Althusser. The result of the study is analyzed that commemorative Struggle set up a starting point as the early modern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In other words, influence of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built up with a high hand though Japanese occupation, caused trauma and cracks. And this has been generated social conflicts, joining with ideology and fantasy. Converged point of this is Anniversary. If Anniversary and commemorative Struggle were inevitable to be existed as a phenomenon about social memory in the past, willpower heading to future should be reviewed through those days, to fill cracks of the society, not to return to the splitting past.

Keywords : Anniversary, commemorative struggle, Modernization, The desire of Other and subject, Lacan and Althusser, memory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